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평교포베네딕토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사도 6,1-7

화답송 | 시편 33(32),1-2.4-5.18-19(© 22 참조)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제2독서 | 1베드 2,4-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4,1-12

영성체송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성가 | 입당 135 예물준비 241(211)
 영성체 496(499) 파견 244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강순기 이레네
- 강순기 이레네 평안한 안식을 위해
- 곽재영
- 김정숙 마르가리타

생미사 지향

- 성령기도회원들의 영육 건강
- 김제나 글로리아 영명축일
- 정연수 소피아 가족을 위하여
- 박상분 라파엘라의 건강을 위하여
- 이종용, 곽은영 레지나
- 정명신 스텔라, 금상연 영육 건강을 위하여
- 박도필 생신축하와 최윤정 영육 건강 위해
- 김애희 테클라 건강을 위하여
- 캠프 중인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을 위하여
- 윤숙자 누시아 생일 축하
- 이은경 헬렌 생일 축하
- 진인은 건강

오늘의 말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요한 14,12)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5월 3일	국민준	이태주	장민우	장민우	김종선 진서윤	김민서 최예준
5월 10일	백이백	민완준	민덕미	민덕미	유종욱 이영혜	어린이 복사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하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황필구 신부 미사 집전

이윽희 루카 신부님의 주일학교 신앙캠프(5/2-5/3) 동반으로 오늘 주일 미사는 황필구(요한카페스트라노, 브루클린 교구) 신부님의 주례로 봉헌됩니다.

제19차 ‘사랑과 나눔의 바자회’:성프란치스코의 집

재속프란치스코 뉴욕 한국 순교자 형제회에서 바자회를 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오늘, 9:00AM-4:00PM

장소: 성 프란치스코의 집(St. Francis Care Center, Inc.)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2026 청년회 펀드레이징

지난주에 이어 청년회에서 직접 제작한 성당 로고 자수가 새겨진 타월 세트를 판매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오늘, 미사 직후, 산 다미아노 홀

품목: 성당 로고 자수 타월 세트

가격: 1 세트 (4개) 당 \$35

2026년 ‘성모의 밤’ 행사

전공동체 행사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9일(토), 6:00PM

장소: 대성전(준비물: 필기구, 목주)

*‘성모의 밤’ 행사에 사용될 꽃을 봉헌하고 싶은 분들은 646-832-7397 (Sr. 마리루시)로 신청해 주세요. 봉헌된 꽃들은 주일미사 제대꽃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 영성특강 일정

5/17(주일) 특강 (11:00AM-12:30PM)	Fr. 이용호 프란치스코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	-----------------------------------

2026년 부활 세례자 첫 고해

5/1(금)	6:30 PM ~	아래성당 고해소
5/9(토)	2:00 PM ~	아래성당 고해소

2026년 제82차 미동북부 ME 부부주말

일시: 2026년 5월 15일 오후 7시 - 17일 오후 5시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s Abbey)
289 US 206. Newton, NJ 07860

문의 및 신청: 646-322-3484

장철순 스테파노 & 장혜윤 크리스티나

Chriskim04@gmail.com

Cheolsoon@gmail.com



2026년 청년회 하이킹 & 성지순례

청년회에서 청년들의 신앙심 고취 및 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하이킹 & 성지순례 행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제: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겠다.” (예레미야서 29,12)

일시: 5/22 - 5/24 (2박3일)

장소: Mount Minsi, Blue Army Shrine

참가비: \$230

접수마감: 5월 10일까지

문의사항: 929-660-4456(청년분과장 진현종 빈첸시오)

비대면 『성서사십주간-구약1』 수강 신청

가톨릭성서모임에서 비대면 『성서사십주간- 구약1』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성경읽기안내서』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이해하고, 15주간, 매주 1회, 비대면으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님의 강의를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활합니다.

일시 선택: (수 오전) 9/2 동부 10AM

(목 저녁) 9/3 동부 저녁 8PM

참가비: 『성경읽기안내-구약1』 수강비 \$70 + 교재비

진도: 모세오경, 역사서

문의: 845-825-9562(안 루피나)

신청마감: 2026년 5월 31일(주일)

*** KCB 미주 가톨릭 방송 후원 안내**

KCB는 주일 미사와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해튼 성당 바자회와 사랑의 음악회를 매년 촬영-제작하며 신앙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선교의 사명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사도직 수행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718-888-9130 / kcbnyorg@gmail.com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김사집 프란치스코 (1744-1802)



덕산 양가 출신 김사집 프란치스코는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신앙을 접하고 세속 학문 대신 교리 실천과 기도예 전념했다. 뛰어난 재능으로 교회 서적을 필사해 가난한 교우들에게 나눠 주었으며, 소외된 이들을 극진히 보살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2년간 육식을 삼가며 예를 다해, 신앙 안에서 지극한 효심을

실천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 당시 김사집 프란치스코는 교우들에게 나눠준 서적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그는 덕산 관아의 모진 형벌과 유혹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으며, 자녀들에게 "천주님과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교우답게 살아가는 데 힘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볼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는 유언을 남겼다.

엄동설한에 해미에서 청주로 이송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평온을 잃지 않았다. 결국 김 프란치스코는 1802년 1월 25일, 청주 장터에서 곤장 80대를 맞고 58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끝까지 열렬한 신앙에 삼덕을 갖추어 철석같은 믿음을 지킨 그는 참된 신앙인의 귀감이 되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80, 가해, 2026. 05. 03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이우식 베드로 | 성서신학자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마태오는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마태 4,23) 다시 말해 가르침과 복음 선포와 치유 행위로 많은 군중을 사로잡으셨다는 거죠.

당신을 따르는 군중이 많아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산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으시고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마태 5,1-2 참조) 이 가르침이 바로 참행복 선언으로 시작하는 산상 설교(마태 5-7장)입니다. 예수님의 다섯 설교 모음집 가운데 첫 번째이며,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 설교’라 합니다. 루카 복음서에는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루카 6,17) 도착하신 후에 이루어졌기에 ‘평지 설교’라 하고요.

두 복음서 저자가 참행복을 선언하는 장소를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마태오복음은 ‘산’을 올법이 선포되는 전형적인 장소로 제시합니다. 십계명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나이 산에서 주어졌듯이, 하늘 나라의 참행복과 지침이 주어지는 장소도 ‘산’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헤로데 임금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성가정 이야기로 예수님을 모세와 연관시켰던 것보다 일맥상 통합니다.(마태 2,13-23 참조) 나아가 예수님의 설교를 다섯으로 묶어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소도 ‘산’입니다.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마태 28,16) 이와 달리 루카복음에서는 사명 부여도 평지에서 이루어집니다.(루카 24,36-53 참조) 어디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마지막 유혹도 “매우 높은 산”(마태 4,8)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부들도 예수님이 왜 산으로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산이 복음의 더 높은 의로움을 가리킨다거나(아우구스티누스), 하느님의 의로움에 대해 가르치고 듣는 이는 누구든지 가장 높은 영적 덕을 갖추어야 된다는 식으로요.(마태오복음 미완성 작품) 어찌 되었든 신앙인의 삶에 유익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도 산상 설교를 마치기 전에 실천할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마태 7,24)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림 묵상

선악과가 있는 묵상 ! “선악과가 있는 동산 |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줄 아는 피조물이라서 호모 파베르(Homo Faber)라고 불리기도 한다는군요. 그런데 어찌다가, 자기가 만든 도구인 인공지능(AI)에게 스스로 존재가 위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혹시라도 당신의 섭리에서 돌아왔은 과학자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이 에덴동산의 추억을 상기토록 하시어, 결코 피조물의 피조물이 생명의 거룩함을 넘보지 못하게 하소서!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